

살며 응원하며 배우며 KAIST 응원단 ELKA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 깊이 남은 추억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한 챕터를 꼭 채울 만큼 단단하고 선명한 기억, ELKA의 KAISTian들에게는 ELKA가 바로 그러하다.

ELKA는 KAIST의 응원단이다. 2005년 창단해서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 KAIST의 역사를 생각하면
역사가 다소 짧은 편이지만, 실력과 활약상은 어느 학교 못지 않다. 석림제부터 정기 교류전까지, 다양한 무대에 선 경험 덕분이다.

지난 3년의 시간은 ELKA에게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다. 연습은 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갔지만
정작 이를 KAISTian들에게 보여줄 기회는 별로 없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재개된 대면 행사에서 다시 날개를 편 ELKA,
이들의 생활을 공연의 주축인 학부 2학년 정단원과 학부 1학년 준단원과 함께 나눴다.



♥ 10K

코로나19 방역이 풀리면서
드디어 시작된 대면 공연.
2년간의 공백 끝에 마침내 재개된
빅 이벤트이자 ELKA의 최대 행사.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정기 교류전이 지난 9월 개최됐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쉽지 않았을
교류전 공연, ELKA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카포전

#포카전아님

#3년만의교류전



@ 신이서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KAIST와 포스텍의 교류전 무대였어요. 두 학교의 응원단이 합동 응원 무대를 꾸미거든요. 여기에도 참여했었죠.

@ 이현민

아, 카포전이 맞는 표현이에요. 포카전이 아닙니다.

@ 송예원

이번엔 우리가 포항으로 갔었어요.

@ 이현민

작년까지는 사이버 카포전이라서 사실상 ELKA에게는 이번 카포전이 첫 교류전 무대나 마찬가지였어요. 2학년인 정회원에게도요. 2020년부터 2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으니까요.

@ 백진현

현역 멤버 중 카포전 같은 큰 무대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긴장감이 컸어요.

@ 이현민

일단 얼마나 준비해야 할 지 감이 없었거든요. 끝을 모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이만하면 됐다는 경험치가 없으니까 조금 과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거기에 신경쓰느라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친 것도 있고...

@ 송예원

정말 어려웠던 점이 하나를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았어요.

@ 이현민

다들 고생이 많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길을 찾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 백진현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많았어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정신없었죠. 그러면서도 막상 무대에 올라서 마침내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 송예원

카포전을 하기 전에 우리 KAIST 학우들 앞에서 응원을 한 번 하거든요. 그 때도 정말 짜릿했는데 카포전 때 KAIST와 포스텍 학생이 모두 모인 앞에서 응원할 때는 행복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봤냐? 이게 KAIST야' 같은 느낌?



카포전의 빛나는 순간, 무대 위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응원단이 아니면 잘 모르는 그들만의 고충, ELKA의 KAISTian은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노력 #바쁨 #물위의백조

@ 신이서
ELKA 입단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여름방학의 연습이에요. 여름마다 기숙사를 빌려서 가을의 공연에 대비해서 두 달 정도 내내 연습하거든요.

@ 백진현
방학 동안 다른 일을 할 시간을 모두 투자해서 연습에 '올인'하는 셈이에요.

@ 신이서
그런 만큼 연습 중에는 힘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두 달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처음으로 단복을 입고 무대에 설 때, 정말 성취감이 컸어요.

@ 이현민
성취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름 연습 동안 월화수목금 한 주 내내 종일 훈련 스케줄이 짜여 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꼭 찬 시간표지요. 평소에도 주말 시간을 온전히 ELKA 활동에 투자해야 하고요.

@ 송예원
방금 말씀드린 연습은 어디까지나 무대 안무를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경기 응원도 무대 공연하고 또 다르잖아요. 휘슬에 맞춰서 호응 유도하고, 동작 맞추고, 계획도 짜고. 이런 준비는 정해진 훈련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했지요.

@ 백진현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학우들이 정말 잘 호응하고 격려해 주셔서 보람이 크죠. 연습 때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싹 사라지니까요.

@ 이현민
학우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KAISTian 모두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만큼 코로나19 기간 동안 캠퍼스 생활에서 활력소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노력이란 억지로 할 수 없는 법이다. 누군가 무언가에 시간을 온전히 쏟는 이유는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ELKA의 KAISTian들이 학창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ELKA에 기꺼이 투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원사유 #성격대로 #활력소

@ 이현민
저는 ELKA에 입단하기 전까지 응원문화를 접해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KAIST에 입학하고 나서 유일하게 끌리는 단체가 ELKA여서 망설임 없이 입단했지요.

@ 백진현
저는 ELKA에 입단한 가장 큰 이유가 '멋'이에요. 단순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복도 멋있고 공연에서 주목받는 모습도 멋지고, 그리고 응원이나 공연에 사용하는 노래들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고.

@ 신이서
제게는 춤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예체능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춤을 좋아하다 보니 늘 아쉬움이 있었죠. 고등학교 내내 대학교 진학하면 치어리딩을 꼭 해보고 싶다는 로망도 있었고요.

@ 송예원
전 솔직히 입학할 때만 해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았어요. 입학식도 비대면이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니 대학교에 있다는 실감도 잘 안 났고요. 그러다 새터 행사에서 우연히 ELKA 공연을 접했는데, 깃발 무대에 확 꽂혔죠.

@ 백진현
ELKA에 지원한 동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소 성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 이현민
그런 성격은 정말 ELKA하고 연결점이 확실하죠. 응원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 백진현
그래서 저도 댄스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춤에는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 움직이는 것도 즐기는 편이라 딱 맞겠다 싶기도 했어요.

@ 송예원
저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 컸어요. 몸 쓰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응원단은 연습 때문이라도 사람들과 늘 함께 해야 하고 몸도 열심히 움직이니까 제게는 정말 딱 맞았죠.

@ 신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겹치면서도 또 다른 맛이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응원단의 액션은 춤과 다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동작이 포인트거든요. 이런 부분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ELKA와 ELKA의 사람들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ELKA의 학우들은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 속에 어떻게 남기고 싶을까.

#삶의전환점 #ELKA가족 #추억

@ 이현민
긴 시간을 함께 한 만큼 ELKA는 저에게 청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대학 시절이 떠오를 거고, 그 시절이 ELKA로 가득 찼으니까.

@ 백진현
'아빠가 이런 거 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겠죠.



ELKA에서 얻는 것도 잃고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요. 무엇이 됐든 ELKA는 제 학창시절 자체예요.

이현민



ELKA에서의 경험이 있게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진현

@ 이현민
맞아요. 저도 주니어 때 정말 걱정도 많고 선배들도 대단해 보였는데 제가 지금은 정회원으로 ELKA 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쌓여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 백진현
한편으로는 ELKA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어요. 처음 입단할 때는 선배들의 동작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연습하다 보니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놀랐죠. 이것처럼 앞으로 살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결국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요.

@ 송예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KAIST에 올 정도면 다들 고등학교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오면서부터는 그동안 미뤄둔 것들을 조금씩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도전이 ELKA였고요. 정말로 ELKA 입단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던 것을 모두 다 해봤어요. 무대에 나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요.

@ 백진현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응원단은 사실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청춘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예요.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면 자랑스레 이야기 해주면서 공유할 거리도 있을테고요.

@ 이현민
나중에 돌아켜봤을 때 ELKA에서의 시간이 제게 너무나 큰 추억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요.

누구나 훗날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추억할 기억이 있을거예요. 제게는 ELKA가 아닐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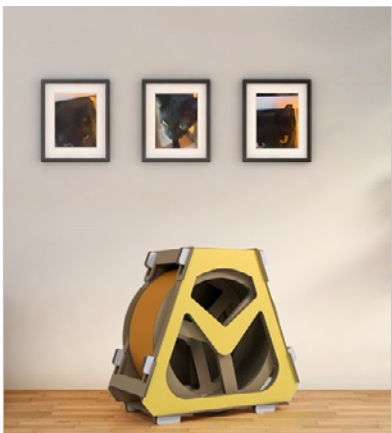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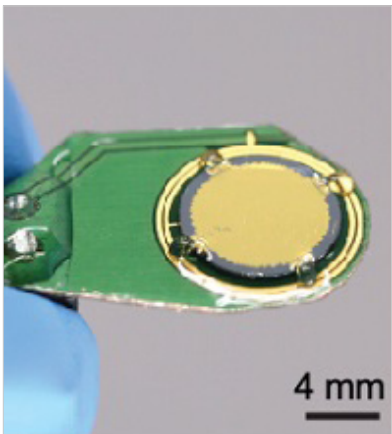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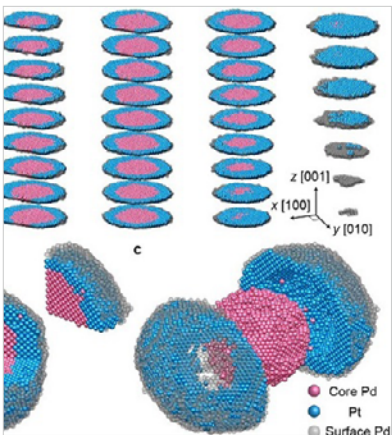
신이서



미뤄뒀던 삶의 여러 것들과 경험을 이룬 곳인 ELKA입니다.

송예원





+ 액체금속 입자로 신축성 인쇄 전자회로 기판 구현

KAIST 신소재공학과 강지형 교수 연구팀이 고분자 속 전도성 액체금속 입자 네트워크 제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고무 특성을 갖는 신축성 인쇄 전자회로 기판을 구현했다. 액체금속은 상온에서 액체의 형태를 띠는 금속으로, 높은 전기전도성과 액체와 같은 자유로운 변형성으로 인해 신축성 전자소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로 평가를 받는다.

>> 더보기

+ 코어-셸 나노입자의 원자 구조와 물성 규명 성공

KAIST 물리학과 양용수 교수, 화학과 한상우 교수, 기계공학과 유승화 교수 공동연구팀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및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영국 버밍엄 대학교와의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팔라듐-백금 코어-셸 구조 나노입자의 3차원 계면구조와 그 특성을 규명했다.

>> 더보기

+ 수면 및 단기 기억력 조절을 위한 초음파 자극-뇌파 측정 시스템 개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 한국뇌연구원 김정연 박사 공동연구팀이 소형 동물에서 초음파 뇌 자극과 뇌파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초소형 시스템을 개발했다. 수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초음파 뇌 자극이 가능한 해당 기술을 이용해, 연구팀은 비 급속 안구 운동 수면 시 전전두엽을 실시간으로 자극해 수면 및 단기 기억력 조절이 가능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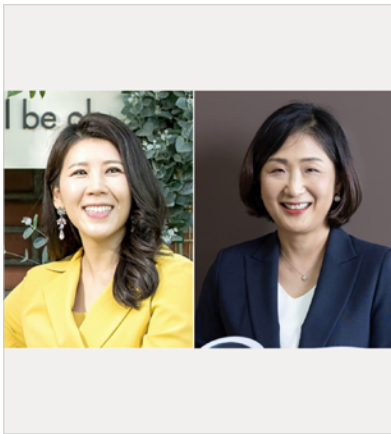
>> 더보기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이색 제품, 신세계 넥스페리움에 전시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사과정 학생들이 개발한 다섯 가지의 이색 제품들이 대전 신세계 Art & Science 넥스페리움에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전시된다. 전시되는 이색 제품들은 고양이들을 위한 노트북에 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터랙티브 퍼즐 장난감까지 다양하다. 신세계 넥스페리움 전시 담당자는 진로와 전공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

PEOPLE



+ 차미영·문수복 교수, ACM 인터넷측정 학회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 수상

KAIST 차미영·문수복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10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ACM 인터넷측정학회에서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상은 10년 이상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논문에 수여하는 상이다. 인터넷측정학회에서는 올해 처음 제정됐으며, 차미영·문수복 교수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박용화 교수 연구팀, 퓨처홈테크 챌린지 대상, 동상 수상

KAIST 기계공학과 인간-기계 상호작용 연구실 정원호 연구원과 임대근 박사과정인 "제1회 대한기계학회-LG전자 퓨처 홈 테크 챌린지"에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본 수상은 대한기계학회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주관해, 미래기술사회의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대한기계 학회와 LG전자 사내 전문가가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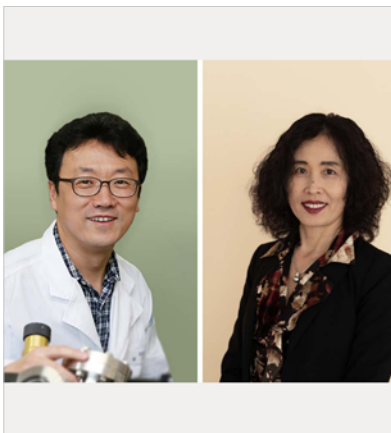
>> 더보기



+ KAIST 창업기업 2곳,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3) 혁신상 수상

KAIST 전산학부 신인식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인 플루이즈와 전기및전자공학부 명현 교수팀이 기술을 이전한 기업인 힐스로보틱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3 중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 부문과 '로보틱스' 부문에서 각각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

>> 더보기



+ 김소영·박정영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임 회원 선출

KAIST 김소영, 박정영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2023년도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과학한림원의 정회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선도적인 연구 성과로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 논문 10편의 수월성 및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과 기여도 등의 중점 평가를 포함해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더보기

CAMPUS



+ QS 2022-23 아시아대학평가 종합 8위 · 국내 1위

KAIST가 최근 발표된 QS 2022-23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국내 1위, 아시아 8위를 차지했다. QS 2022-23 아시아 순위는 지난해 14위에서 여섯 계단 뛰어오르며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톱 10에 포함됐다. 평가 대상에 오른 국내 대학 89개 중 87%의 순위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돋보인 성과다. 11개의 평가지표 중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국제 공동연구 협력 현황 ▲외국인 학생 비율 ▲파견 교환 학생 수 등 5개 지표의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 더보기



+ 행정종합민원봉사실 '카이헬프' 개소

KAIST가 카이헬프(KAIHelp, 행정종합민원봉사실)을 개소했다. 카이헬프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민원 업무를 통합해서 대응·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객경영팀 산하의 부속시설이다. KAIST는 카이헬프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고 민원 처리 단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장기근속직원을 카이헬프에 배치해 축적된 역량을 민원 업무 해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더보기



+ KAIST-성남시 '도시생태 건강성 회복 4차산업혁명 교육·연구' 협약

KAIST가 11월 16일 성남시와 '도시생태 건강성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교육·연구 상생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4층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및 연구 활동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더보기



+ KAIST 첫 마이크로디그리, 반도체실무인력 양성과정 1기 수료식 개최

KAIST가 11월 25일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KAIST IDEC 동탄 교육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과정' 1기 수료식에서는 KAIST 개교 이래 첫 마이크로디그리가 수여됐다.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과정'은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가 지난 8월 개설했다.

>> 더보기